

축서사 선원장 무어 스님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자비를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8면

현대불교

금주의 법구- 육조단경
깨달음의 지혜는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까닭에
자신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5월 1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946호 2013년 6월 26일 수요일

‘독자·시장·재정’ 3低... 시름하는 불교출판

서울 국제도서전 불참, 불교출판 현주소는

한국을 대표하는 도서 박람회인 서울 국제도서전이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한국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분야의 출판사들이 참가했지만,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 이하 불출협)는 참가하지 않았다. 두란노 서적, 예영커뮤니케이션, 한국기독교출판협회 등 개신교 대표 출판사와 단체들이 출판 부스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기독교 문화거리'를 조성한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복수의 불교출판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국제도서전 참가를 2012년부터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유는 서울국제도서전이 너무 아동 위주 체험 행사로 변질됐고, 비용과 인력 대비 홍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물론 서울국제도서전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도서 나열과 할인 판매에 그치고 있어 전체 참가 출판사들이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불교계 관련 출판사들의 참가가 전무한 것은 불교 출판업계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애초 위기였던 불교 출판업계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고 있

다는 뚜렷한 단초 중 하나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조계사 앞 마당에서 열리는 '불교도서전'의 매출 감소다. 2011년 2000만원 대였던 매출이 지난해 백양사 승려 도박사건으로 행사 기간동안 1800만원의 수익을 얻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렇게 불교계 출판이 약세를 거듭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불교계 출판 관계자들은 독자·시장·재정 3중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꼽는다. 즉, 총체적인 시스템의 부재로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것이다. 불자가 책을 읽지 않으니, 시장은 좁아지고, 저자 층도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출판사들은 재정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은 출판협회의 차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독서열이 높은 기독교의 경우 한국기독교출판협회에 등록된 출판사만 무려 1백 67곳에 이르며 매년 2000종 이상의 책을 발간한다. 반면 불교는 불출협에 소속된 출판사는 24곳에 불과하다.

실제 불서출판 운주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된 불교

2012 불교 관련 출판 총수 및 분류

분류	종수
법어/에세이	114
경전/계율	66
수행/위빠사나/기도	33
소설/시/예술	33
학술서	28
선서	26
인물/평전/행장	17
입문/개론	14
기행/순례/역사/문화재	18
포교/교육/의식/음악	11
아동/만화/카툰	8
기타(테이벳불교/종교일반 등)	32
전체	400

2년 연속 국제도서전 불참
비용 대비 홍보 효과 없어
개신교, 연합해 거리 조성
불교도서전도 매출 감소 중

지난해 불교 도서 400종
법문·에세이만 114종 편중

책 안 읽는 불교계 풍토가
시장 형성 저하에 주 원인
"중단 차원 독서캠페인을"

2012 불출협 회원사 발간 도서 중수

출판사	중수
운주사	27
불광출판사	23
민족사	13
동국대출판부, 조계종출판사	12
담연북스, 정우 서적	6
김영사	5
동국대역경원, 불교시대사	4
법공양, 클리어마인드	3
정도출판, 우리출판사,	2
솔바람, 동쪽나라	1
부다가야	1
전체	127

관련 서적은 총 400종. 그중 114종이 스님의 법문이나 에세이로 가장 높은 비중을 가졌다. 또한 불출협 소속 출판사에서 발간한 도서는 127종에 그쳤으며, 그나마도 운주사·불광출판사·민족사 등에 출간 비율이 편중돼 있었다. 독자와 시장이 없는 불교계 출판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불교 출판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할까? 불교 출판 관계자들은 불자들의 독서열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열 운주사 대표는 "불교계 출판사들도 양질의 기획 도서를 시장

에 내놔야 하지만 한국불자들은 책을 경시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며 "또한 노력층이 주요 신도 층이다 보니 책에 대한 수요가 적다"고 지적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한국불교 스님들부터 책은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해 있다. 이를 신도들도 그대로 배우는 것"이라며 "독서도 좋은 음식과 같다. 쉬운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책을 읽어야 한다. 지적 수준이 바탕되지 않는 종교는 단순한 맹종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계종 차원에서 사찰도서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더 실질적인 불서 읽기 운동이 필요하다. 조계종 전 종도가 책을 읽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중단 차원의 불서 읽기 캠페인을 전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른 출판 관계자는 "적지 않는 스타 필진 스님을 불교계는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외부 출판사를 통해 이름을 높인 후 불교계 출판사에서 회향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스타 마케팅을 통해서라도 재정을 확보해야 양질의 기획 도서 등을 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신임 군종교구장 후보 정우 스님

상임위원회서 만장일치로 추대... 총무원장 임명 남아

제3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후보에 정우 스님(강남 구룡사 회주·사진)이 추천됐다. 군종교구 상임위원회는 6월 18일 국방부 원광사에서 정우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따라서 정우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후 7월 26일 이취임협회를 갖고 본격적인 임무에 들어간다.

한편, 정우 스님은 1968년 통도사에서 흥법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71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9



대~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통도사 주지, 총무원 총무부장 등을 지냈다.

구룡사를 창건하는 등 도심교교의 선구자로도 이름이 높다.

무엇보다 20대부터 군포교에 남다른 애정을 쏟아 일반 사병으로서 26사단에서 복무하면서 군법당 2곳을 창건한 것으로 유명하다.

정혜승 기자 bwjns@hyunbul.com

"직능기구 참여로 종회의원 선출"

중단 쇠신위, 10차 회의로 활동 종료

조계종 중단쇠신위원회(위원장 밀운, 이하 중단쇠신위)가 중앙종회 직능대표의 전문성 및 대표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격을 강화하는 쇠신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직능기구를 중단 내 공식기구로 승격시켜 선출위원회에 참여시킬 것을 제안했다.

중단쇠신위는 6월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0차 회의를 열어 '중앙종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중앙총무원장 개선을 위한 제안', '법제적제도 제안' 등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중단쇠신위는 중앙종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주장했다. 쇠신위는 이날 "현재 직능직 종회의원을 선출하는데 있어 직능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원수좌회 등 임의단체 성격의 직능기구를 종법기구로 공식화시켜 직능대표선출위에 동참시킬 것을 결의했다.

한편, 중단쇠신위는 이날 제10차 회의로 활동을 종료했다. 회의의 시작 전 위원장 밀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

해 "지난해 일어난 불미스러운일로 중단쇠신위가 발족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일들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며 "중단쇠신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잘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지승 스님은 기획실장 주경 스님이 대독한 처사를 통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만든 쇠신안이 중단 내 충실히 구현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법당에 부처님이 왜 이렇게 많죠?

사제 서품을 앞둔 천주교 부제들이 6월 18일 서울 화계사를 방문해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19일까지 '제7회 주교회의와 함께하는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를 진행 중인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강우일 주교)가 마련한 것으로 광주·대구·대전·부산·서울·수원·인천 등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의 부제 130여명이 참가했다.


부제들은 화계사가 준비한 저녁 공양을 마치고 화계사 경내를 돌아본 후 대적광전에서 진행된 저녁에 불에 참석해 대중들과 똑같이 저녁 예불을 체험했다. 예불을 모신 후 부제들은 주지 수암 스님과 대화 시간에 평소 궁금했던 불교에 관해 직접 묻고 대화를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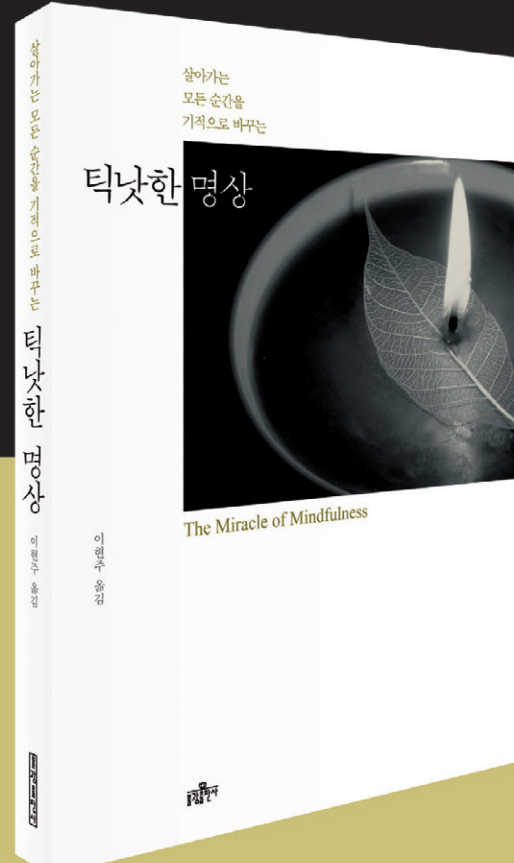
글, 사진= 박재완 기자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946호 INDEX

시방세계 "불교 전해준 한국에 고등준 것 참회"	5	학술 금강대, 하버드대 공동으로 유가사지론 집대성 총서 간행	9
		호국사찰 고성 건봉사를 가다	12
		화엄만다라	16·17
		최후호 고려대 국문과 교수	



틱낫한 명상
The Miracle of Mindfulness

The Miracle of Mindfulness

먹고, 걷고, 일하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게 하는
틱낫한 스님 명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책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틱낫한 명상

이현주 옮김 | 160쪽 | 11,000원

1995년 최초 한국어판 출간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진정한 성찰과 감동을 전해온 틱낫한 스님의 대표 명상 책

유나방송 정목 스님 추천!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마치 관찰 수행 같지만 합니다. '출렁이는 물결도 물이듯이 어지러워진 마음도 역시 마음이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들 수 있을 때 미혹된 마음이 참마음으로 바뀐다'는 그 말씀 되새기며, 스님 책이 많은 이의 미혹된 마음을 참마음으로 바꾸어놓기를 기대합니다."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